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피터 엔즈(Peter Enns)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피터 엔즈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705~728쪽. 2008년에 쓴 서평으로, 본문 26장(무오성)과 28장(성경의 '문제들')을 보충하려고 실었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후원단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엔즈의 책(원제 *Inspiration and Incarnation*, 2005년 출간)을 꼼꼼히 읽는다. 그는 먼저 이 책이 겸손을 가르치는 데는 좋지만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다. 그다음 엔즈의 세 주제를 차례로 검토한다. 첫째, 성경이 고대 근동 문화와 닮았다는 점(비독특성). 둘째, 구약 안의 신학적 다양성. 셋째, 신약이 구약을 쓰는 방식이다. 세 곳 모두에서 프레임의 진단은 같다. 엔즈가 내놓은 자료는 대부분 전통적인 '유기적 영감' 교리로 충분히 설명된다. 그런데도 엔즈는 '독특성·다양성·신화·궤도' 같은 말을 흐릿하게 써서 진짜 질문을 피한다. 그 진짜 질문은 두 가지다. “영감은 성경이 참이라는 근거가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결론에서 프레임은 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확신을 함께 기르는 성경론이라고 말하고, 엔즈의 책은 그 기본 교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절별 정리

📜 서론. 겸손과 확신 사이

프레임은 자기가 구약학자도, 고대 근동사 전문가도 아니라고 먼저 밝힌다. 다만 평생 '성경의 권위'를 연구했으니 할 말이 있다고 한다. 폴 헬름, 그레그 비일, 도널드 카슨이 이미 서평을 썼으므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기 글은 더 자세하다고

진영에 실제로 필요한 말이라고 인정한다. 설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유한하고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이 둘의 긴장을 한 번에 푸는 공식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뜻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확신하면서, 동시에 자주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엔즈의 책은 이 가운데 겸손 쪽만 채운다는 것이 프레임의 첫 평가다.

1. 비평이지만 먼저 칭찬하고 배운 점을 밝힌다
2. 해석할 때 겸손하라는 엔즈의 강조는 옳다
3. 설교자에게는 겸손과 확신이 둘 다 필요하다
4. 엔즈의 책은 확신 있는 선포에 도움이 안 된다
5. 이 '확신의 공백'이 서평 전체를 꿰는 실이다

📜 1-1. 비독특성 ① — 고대 근동과 닮은 성경

엔즈의 첫 주제는 '비독특성'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같은 종류의 언어를 쓰고, 성전·예언자·제사장·왕·법전 같은 제도도 비슷하게 가졌다는 뜻이다. 프레임은 이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50년 동안 성경의 권위를 연구하면서, 이런 유사성 때문에 영감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과 닮았고, 이웃 나라에도 창조·홍수 이야기와 지혜문학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전통이 더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경에 결함이 있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있는 법 전통을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쓰게 하셨을 수 있다. 같은 홍수를 기록했다면 이야기가 서로 닮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은 저자의 노력, 자료, 문화의 영향 같은 인간적 원인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서 성경을 만드셨다. 엔즈는 “고대 관습을 반영하는 책이 어떻게 계시인가?”라고 묻는다. 프레임은 “왜 아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누가와 요세푸스가 둘 다 예수님을 기록했어도 누가복음만 계시인 이유는 누가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독특한 이유도 문화가 독특해서가 아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독특하게 증언하기 때문이다. 아카드 홍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닮았는데 어떻게 하나만 참이냐는 물음에도 답은 간단하다. 아카드

있다. 엔즈는 왕정 이전 시대는 증거가 부족하니 역사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프레임은 신적 영감 자체가 증거가 아니냐고 묻는다.

1. 고대 근동과 닮은 점은 권위 문제가 아니다
2. 하나님은 기존 법·자료·인간의 노력도 쓰신다
3. 성경의 독특성은 문화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있다
4.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 이야기가 닮는 게 자연스럽다
5. 영감은 성경이 참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신적 영감은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단 말인가?”

📜 1-2. 비독특성 ② — 신화인가 역사인가, 더 오래된 이야기들

엔즈는 보수주의자들이 상대편과 같은 전제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세부까지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하고, 주변 문화와 달라야 한다는 전제다. 프레임은 이렇게 답한다. '독특해야 한다'는 기준은 보수주의 입장에 들어 있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지혜로운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의 모든 장르가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늘 인정해 왔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창세기는 역사를 주장하는 글인가?”이다. 프레임은 아니라는 주장도 들을 마음이 있지만, 설득력 있는 논증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한다. 엔즈는 신화를 '궁극적 기원과 의미를 이야기로 다루는 고대의, 과학 이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로 성경 이야기를 부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프레임은 이 정의가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일부러 비켜 간다고 지적한다. '기원'이라는 말만 빼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이 정의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활은 우리 삶의 의미를 선포할 힘이 없다. 베드로후서 1:16도 '신화'라는 말을 쓰기 전에 머뭇거리게 만든다. 엔즈는 신화와 역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현대의 발명이라고 하지만, 프레임은 고대인도 실제 사건과 비유의 차이를 알았다고 답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역사가 아니지만 가치가 덜하지 않다. 다만 그 비유들도 실제

캔터의 말도 소개한다. 기독교가 다른 신비종교보다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유가 바로 역사적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웃 나라 신화가 더 오래되었다는 점(50-56쪽)에 대해 프레임은 성경의 진실성을 해치지 않는 세 가지 가능성을 든다. 엔즈는 이 가능성들을 “언어학자와 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로만 물리친다. 프레임은 학계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은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이스라엘 법이 계시인 이유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순종해야 할 법이어서'라는 엔즈의 설명, 그리고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 서술은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프레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엔즈는 유기적 영감과 다른 새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개념을 흐리게 써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 장르 구분은 필요하지만 '일어났나'는 피할 수 없다
2. 엔즈의 신화 정의는 역사성 질문을 비켜 간다
3.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기에 의미가 있다
4. 고대인도 사실과 비유를 구분할 줄 알았다
5. 학계의 인정은 논거가 될 수 없다

> **베드로후서 1:16**
> 사도가 자기 증언은 '꾸며 낸 이야기(신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을 신화라 부르는 데 신중해야 할 이유 (번역본에는 '베드로후서 2:16'으로 적혀 있으나 문맥상 1:16)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창세기 5:1**
>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표현. 모세 이전에 이미 기록된 자료가 있었고, 모세가 그것을 썼을 수 있다는 셋째 가능성의 근거
>
>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 의미를 선포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2-1. 신학적 다양성 ① — 어떤 다양성인가

엔즈는 구약 안에 신학적 다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임은 '다양성'이라는 말이 '독특성'만큼 흐릿하다고 본다. 다양성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한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관점의 다양성이 있고, 강조점이 다른 다양성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불일치의 다양성이 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 성경론은 앞의 두 가지와 아무 갈등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일치뿐이다.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되면 둘 중 하나만 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엔즈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다양성을 말하다가 슬쩍 다른 종류로 넘어간다. 성경은 어떤 다양성은 분명히 거부한다.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믿으라거나, 믿음으로도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엔즈가 든 예들을 하나씩 보면 대부분 전통 견해로 설명된다. 잠언이 때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라는 관점의 다양성이다. 잠언과 전도서의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지혜는 때로 보상을 받고 때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엔즈는 '애써 해결하지 말라'고만 한다(80쪽).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원리를 상황을 살피지 않고 피상적으로 들이댔다. 신명기도 상과 벌이 즉시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 욥기에서도 보상은 말년에 오고, 결국 이 문제는 공의가 완성될 내세를 바라보게 한다. 사무엘서·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목적이 달라서 생긴 강조의 차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른 것도 쉽게 설명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서 왔고,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세의 말씀 권면에서 왔다. 각 세대가 율법을 새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엔즈의 말은 옳다. 프레임은 이것이 자기가 말해 온 '상황적 관점'과 같은 이야기라고 본다(각주 10). 출애굽기 20:5-6과 에스겔 18:19-20도 모순이 아니다. 출애굽기는 아들이 아버지 죄 때문에 벌받는다고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아들 세대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대의 일원이라는 뜻이다.

1. '다양성'은 관점·강조·불일치로 나눠 봐야 한다
2. 관점과 강조의 차이는 성경론에 문제가 없다
3. 진짜 모순이면 둘 다 참일 수는 없다
4. 엔즈가 든 예들은 대부분 관점·적용의 차이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다. 출애굽기 십계명의 출처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1

다시 새긴 돌판. 출애굽기판이 '원 돌판'에서 왔다는 근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20:5-6

조상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대 전체에 대한 말로 읽는다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에스겔 18:19-20

아들은 아버지 죄를 지지 않는다. 율법 뒤에 숨지 말라는 권면이라 출애굽기와 모순이 아니다

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2-2. 신학적 다양성 ② — 경계에 선 예들과 '성육신' 비유

그러나 엔즈의 예 가운데 몇 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첫째는 유월절 양을 구워야

모순이다. 프레임은 여기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엔즈가 밋밋한 예들로 독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 모순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지적한다. 엔즈라면 독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동료 브루스 왈키도 엔즈의 히브리어 해석을 비판했다고 덧붙인다. 둘째는 모압 여인 룻의 결혼과 신명기 23:3의 관계다. 프레임은 신명기 7:3이 더 직접 관련된다고 본다. 룻과 보아스가 율법을 어겼다 해도 그것은 율법 자체의 모순이 아니다. 우리도 모두 율법을 어기고, 라합이나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은혜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엔즈가 말하는 이방인 분리에서 포용으로의 큰 흐름은 창세기 12:3에서 갈라디아서 3:26-29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분리 규정은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규정이었다. 셋째는 다른 신들이 '없는 것'으로도, '있는 것'으로도 나오는 문제다. 전통 견해로 충분하다. 신이라 주장하며 예배받는 악한 영적 존재는 있지만, 신으로 불릴 자격은 없다. 넷째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느냐는 문제다. 프레임은 열린 신학 논쟁을 다룬 자기 책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변하지 않지만,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실제로 반응하고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변화들도 변함없는 작정이 다스린다. 엔즈는 '추상적 논의' 대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말하자고 한다. 프레임은 이 마음에 공감한다. 하나님이 소돔을 살피러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는 신학적 단서를 달지 않고 그대로 말해도 된다. 하지만 질문이 생기면 교사는 더 높은 차원의 설명을 해 줄 책임이 있다. 엔즈는 두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신다는 '신적 적응'은 칼빈 이래 개혁신학이 강조해 온 것이고, '성육신'은 이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은유이므로 함부로 결론을 끌어내면 안 된다. 성경의 궁극적 통일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성경론이 묻는 것은 그 통일성이 성경의 '말' 자체에 반영되어 있느냐다. 성경은 언어이고, 성경론은 언어에 관한 교리다. 그리고 성경은 언어로서 자기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친다.

1. 유월절 규정만은 외관상 실제 모순이다
2. 율법을 어긴 것과 율법끼리의 모순은 다르다
3. 분리 규정은 한시적이고 목표는 이방인의 포용이다
4. 영원한 계획은 불변, 역사 속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5. '성육신'은 은유이고, 성경론은 말씀의 언어를 다룬다

[8]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신명기 16:6-7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규정. 히브리어로 '삶다/요리하다'로 읽히는 말이 7절에 있다 (번역본 인용은 16:6)

[6]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역대하 35:13

요시야 때 유월절 양을 '불에 삶았다'고 기록. 두 규정을 함께 반영한 듯한 본문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신명기 23:3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엔즈가 룻의 사례와 맞세운 구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7:3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프레임은 룻 문제에 이 구절이 더 맞는다고 본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창세기 12:3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방인 포용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사야 49:6

종이 이방의 빛이 된다. 같은 목적이 예언서로 이어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3:26-29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분리 규정이 한시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26]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3-1.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사용 ① — 사도들은 어떻게 읽었나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엔즈는 그 예로 누가복음 20:34-38을 든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6(“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활을 증명하신다. 그러나 엔즈는 출애굽기 3:6을 처음 읽는 누구도 부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신약 저자들은 구약 원저자의 맥락과 의도에 맞추어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구약이 진짜 뜻하던 바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 태도를 오늘 교회도 이어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신약 저자들은 오늘날의 '문법적-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법적-역사적 해석은 원저자가 그 시대 언어와 상황에서 뜻한 바를 찾는 방법이다. 엔즈는 사도들이 대신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해석 관습을 따랐다고 본다. 그 근거로 외경 솔로몬의 지혜서와 쿰란 공동체의 해석을 든다. 그리고 마태복음 2:15의 호세아 11:1 인용처럼 문법적-역사적 기준으로는 '틀려' 보이는 예들도 정당하다고 말한다. 당시 해석 관습과 비슷했고,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의 주제로 보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먼저

'가르치려고 쓰였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 구절이 부활을 '함축한다'고 하셨다. 또 프레임은 구약 원저자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맥락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구약 저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궤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 궤도의 이른 단계에 서 있다. 그러니 마태의 호세아 인용이 원래 맥락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호세아의 원래 맥락과도 떼어 낼 수 없다. 각주 15에서 프레임은 비일과 카슨의 『신약의 구약 사용 주석』(2007)을 소개한다. 이 책은 예언과 모형을 구분하고, 신약의 구약 사용이 문법적-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논증한다. 프레임 자신은 신약의 다양한 인용 방식을 묶는 가장 좋은 말이 '적용'이라고 본다. 엔즈는 바로 이 단어를 거부했다.

1. 엔즈: 사도들은 원래 맥락과 다르게 구약을 읽었다
2. 엔즈는 제2성전 시대 해석 관습을 근거로 든다
3. 예수님은 출애굽기 3:6이 부활을 '함축'한다고 하셨다
4. 구약 저자도 그리스도 궤도의 이른 단계에 있다
5. 프레임: 신약의 인용 방식을 묶는 말은 '적용'

> **누가복음 20:34-38**
> 예수님이 출애굽기 3:6으로 부활을 논증하신 장면. 엔즈가 낯선 해석의 예로 든다
>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 **출애굽기 3:6**
>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자기소개처럼 보이는 구절
>
>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가복음 20:38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예수님의 논리는 '가르친다'가 아니라 '함축한다'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4:13-35

엠마오 길. 그리스도가 구약의 의미라는 신약의 관점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

마태복음 2:15 (본문 표기 2:12-15)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를 예수님께 적용한다

마태복음 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1-3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프레임은 이것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맥락의 일부로 본다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 3-2.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사용 ② —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엔즈는 사도들의 목적, 곧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일은 따르자고 한다. 하지만 제2성전 시대의 방법까지 따를 수는 없다고 본다(158쪽). 프레임은 바로 여기서 묻는다. 사도들의 방법은 버리면서 어떻게 그들의 그리스도 중심 해석은 지킬 수 있는가? 엔즈는 '방법'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고 답한다. 프레임은 이것이 문제를 그냥 치워 버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가면 무엇이든 괜찮고, 누구의 해석도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신학교에 해석학 교수가 왜 필요한가? 물론 엔즈도 상대주의는 피하려 한다. 해석은 과학이면서 그만큼 예술이다. 성경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있다. 해석은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참여 속에서 한다. 성경 해석은 지켜야 할 요새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다. 프레임은 이 모든 말에 “그렇다!”라고 동의한다. 각주 17에서는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 해석은 먼저 언어에 대한 직관에서 시작되고, 방법은 그 직관을 정리한 부차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영감받은 성경 저자들이 해석한 것은 무엇이든 좋은 해석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이다. 각주 18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의 '참뜻은 하나'라는 말이 중세의 네 겹 해석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조항이 성경 의미의 풍성함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성경의 불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석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그런데 엔즈는 때로 한 해석을 다른 해석에 맞서 변호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줄 도움은 내놓지 않는다. 엔즈는 성경이 많은 문제에서 '규칙이 아니라 궤도'를 준다고 결론짓는다. 프레임은 이 말에 당혹스러워한다. 윌리엄 웹은 노예·여성·동성애 문제에서 성경이 직접 지침이 아니라 궤도만 주므로, 신약보다 더 나은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궤도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 프레임은 이것이 '오직 성경'을 어기는 것이라고 본다. 엔즈가 웹의 생각 전체를 따르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끝으로 프레임은 '들을 줄 알라'는 엔즈의 권고에 동의한다. 논쟁적인 신학자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 겸손·사랑·인내로 공정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1. 방법은 버리고 목적만 지키는 게 가능한가?
2. '방법 없이 읽기'는 '아무렇게나 읽기'가 되기 쉽다

4. 영감받은 저자들의 해석은 그대로 좋은 해석이다
5. 성경 대신 '궤도'가 기준이면 오직 성경이 무너진다

📜 4. 결론

프레임은 엔즈를 칭찬하며 결론을 시작한다. 성경과 고대 근동 문헌에 관한 유용하고 쉬운 정보가 가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성경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문법적-역사적 방법'의 잣대로 성경을 지나치게 방어하는 데서 교회를 벗어나게 하려는 엔즈의 동기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첫째, 비독특성 문제는 인위로 만든 문제다. 오히려 엔즈는 영감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이상할 만큼 꺼린다. 그가 내세우는 증거는 늘 귀납적인 자료이지 신적 영감이 아니다. 아마 영감을 '사건'으로만 보고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여기는 듯한데, 이는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 각주 21에서 프레임은 '영감'이라는 제목을 단 책에 영감 개념을 정리한 논의가 없고, 디모데후서 3:16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번역문은 '언급도 없다'고 옮겼지만, 107쪽 표시로 보아 한 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양성 논의는 관점과 강조의 차이에서 실제 불일치로 미끄러진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의 불오성과 무오성에 무엇을 뜻하는지는 '추상적 논의'라며 피한다. 프레임에게는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셋째, 신약의 구약 사용에서 엔즈는 본문에 없는 뜻을 읽어 넣은 듯한 예들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오늘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동체와 성령에 맡기자는 말로 끝낸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 선포가 분명하고 확신에 차야 하며, 거짓 가르침과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0). 그런데 수많은 교파가 성령의 말씀을 두고 서로 다르게 말할 때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는가? 엔즈는 이 질문을 열어 둔 채 떠난다. 그래서 프레임은 이 책을 신학생의 영감론 기본 교재로 추천하지 않는다. 겸손은 길러 주지만 성경 본문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전혀 길러 주지 않기 때문이다.

1. 정보와 겸손하게 하려는 동기는 칭찬한다
2. 영감을 성경이 참이라는 증거로 쓰지 않는 게 문제
3. 모순이 무오성에 뜻하는 바를 피해 간다

5. 신학생에게는 겸손과 확신이 함께 필요하다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을 다룬다는 책이 이 핵심 구절을 거의 다루지 않는 공백을 드러낸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유기적 영감
하나님이 저자의 성격, 지식, 자료, 노력, 문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서 영감하셨다는 개혁파의 견해.

무오성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에 틀린 것이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없다는 성질. 무오성보다 '믿고 따를 수 있음'에 초점을 둔다.

비독특성
성경의 언어·제도·문학 형식이 주변 고대 문화와 닮았다는 엔즈의 말.

신적 적응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가르침

문법적
역사적 해석 — 원저자가 그 시대의 언어와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찾는 해석 방법.

제2성전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뒤 성전을 다시 지은 때부터 주후 70년 성전 파괴까지의 유대교 시대.

그리스도 목적적 해석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을 출발점으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한다고 읽는 엔즈의 해석 방식. (설명은 역자 주에서 왔다)

오직 성경
신앙과 삶의 최종 기준은 성경뿐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이 고대 문화와 닮았다는 사실은 유기적 영감 교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성경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다.
- 핵심 질문은 '영감이 성경의 진실성을 보증하는가',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는가'이다. 엔즈는 이 질문을 피한다.
- 성경 안의 다양성은 관점·강조·불일치로 나눠 보아야 한다. 진짜 모순이 무오성에 무엇을 뜻하는지는 성경론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 해석은 겸손한 예술이자 공동체의 동행이다. 그러나 성령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확신도 있어야 한다.
- 좋은 성경론은 겸손과 확신을 함께 길러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6편 · 모순처럼 보이는 곳들 · 성경의 문제들에 답하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